

# 漁村 沈彦光 詠史詩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삶의 지향\*

강 지 희\*\*

<目次>

I. 緒言	2. 恨死에 대한 탄식
II. 역사에 대한 관심과 영사시	3. 進退의 문제
III. 詠史詩의 諸樣相	4. 明哲保身の 警戒
1. 節義의 表彰	IV. 結語

<국문 초록>

漁村 沈彦光은 중종조의 명신이었으며 詩文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850수의 시 작품을 남겼고 그 중 영사시는 44수이다. 이 시들은 그가 파직당하고 귀향한 후 복잡한 심경 속에서 지어졌다. 이 시편들에 담겨 있는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곧 어촌의 자기 인식, 삶의 지향, 世事에 대한 그의 가치판단 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歸田錄』에 수록된 그의 영사시를 분석하였다.

심언광이 낙향한 후 쓴 시들에서는 곳곳에서 슬픔과 회한이 나타난다.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였으며, 늘 대궐을 그리워하고 임금 을 모시던 과거를 추억하였다. 이 같은 심리상태에서 그가 말년에 지은 영사시의 소재 인물들은 대개가 위기의 시대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다. 그리고 심언광 자신이 그런 충신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순수한 衷情이

\* 본 논문은 ‘제3회 어촌 심언광 전국학술세미나’(강릉문화원, 2012)에서 발표한 원고 「어촌 심언광의 영사시에 대한 일고찰」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사 / haha0215@hanmail.net

항상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역사 속에는 절의를 지키고도 억울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심언광은 재주를 다 펼쳐 보이지 못하고 恨死에 이른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그 인물들의 삶에 대한 탄식과 추모인 동시에 자신에 대한 위로이자 하소연이었을 것이다.

진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은둔 끝에 현실정치에 참여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경계하였고, 은둔을 지향한 隱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서술을 하였다. 당시 심언광은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러한 처지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했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는 여러 왕조를 거치고 여러 임금을 섬기면서 時流의 변화에 따라 保身에 능했던 기회주의적 인물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삶에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대체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直臣들을 선양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가 지향했던 충신의 참모습을 읽을 수 있다.

【주제어】 漁村 沈彦光, 詠史詩, 忠臣, 節義, 恨死, 進退, 明哲保身

## I. 緒言

漁村 沈彦光(1487-1540)은 중종조의 명신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후 三司의 淸要職을 두루 거치고 예문관 제학,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시문을 잘한다는 평을 얻어 1537년(중종 32) 明나라에서 사신 龔用卿과 吳希孟이 皇子の 탄생을 알리고자 왔을 때 湖陰 鄭士龍과 더불어 館伴使에 임명되었다. 사신을 접대하며 시를 酬唱하는 자리에서는 그의 민첩한 솜씨에 明나라 사신들이 모두 감탄할 정도로 그는 당대에 文才를 인정받은 시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詩文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中宗朝 중반에 권력을 독점하여 수많은 옥사를 일으킨 金安老(1481-1537)를 그가 조정에 끌어들이는 일로 인하

여 불명예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었다. 김안로가 賜死당한 그 이듬해 심언광도 삭탈관직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였으며, 1538년 52세의 나이로 鏡湖別業에서 別世하였다.

그는 850수의 詩 작품을 남겼고<sup>1)</sup> 그 중 詠史詩는 44수를 차지하는데, 그 중 「昭君怨」과 「深宮怨」 2수는 그가 함경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당시 쓴 『北征稿』에 실려 있고, 나머지 42수는 『歸田錄』에 실려 있다. 『귀전록』은 1538년 2월에 파직되고 난 후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와 지은 저작이다. 그 중에서도 영사시는 『귀전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으니, 어촌의 말년작이라고 할 수 있다.

詠史詩는 시인이 역사 속에서 소재를 취하여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의탁하여 읊은 시를 말한다. 대개는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 속의 인물을 제재로 하여 쓰기 마련인데, 어촌은 주로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하였다. 영사시는 역사적인 사실 또는 역사 속 인물에 관한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단지 회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시인이 과거의 역사 사실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시인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 또한 삶의 지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귀전록』을 보면 파직을 당하고 명예를 잃은 채 낙향해야만 했던 어촌의 참담한 심정이 첫 번째 수록된 시에서부터 드러난다.

曉出青門路	새벽에 청문로를 나와서
停鞭首屢回	채찍을 멈추고 자꾸만 고개를 돌려보네
殘生還故土	남은 생애 고향으로 돌아감은
聖主棄菲才	임금께서 변변치 못한 나를 버리셨음이라
直道眞讒柄	곧은 도는 진실로 비방의 근원이요
虛名是禍胎	헛된 명성은 재앙의 모태로구나
孤臣猶不死	외로운 신하 아직 죽지 않았는데
時網亦恢恢	시대의 그물망은 또한 넓고도 넓구나 <sup>2)</sup>

1) 『韓國文集叢刊』 卷24에 『漁村集』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詩가 850여 수이고, 文은 40여 편이다.

靑門은 漢나라 長安城의 동남문으로, 여기서는 한양의 대궐문을 가리킨다. 대궐문을 나서면서 자꾸만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그만큼 悔恨이 남아있음을 뜻한다. 直道와 虛名으로 인해 비방을 받고 재앙을 만난 시인은 여전히 자신을 옹아매는 세상의 그물이 한없이 넓은 것을 한탄한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 進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가슴에 품은 포부를 다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애석함 등은 『귀전록』에 수록된 많은 시편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어촌이 ‘擬詠史’라는 제목 하에 쓴 40수의 영사시, 그리고 蘇武를 제재로 쓴 「北海牧羊」, 商山四皓를 제재로 쓴 「商山採芝」 등은 모두 『귀전록』 말미에 실려 있다. 이 시편들은 그가 귀향 후에 느꼈던 복잡한 심경 속에서 지어진 것들로,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곧 어촌의 자기 인식, 삶의 지향, 世事에 대한 가치 판단 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귀전록』에 수록된 영사시의 분석을 통해 어촌이 고향에 돌아온 후 지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읽어보고자 한다.

## II. 역사에 대한 관심과 영사시

젊은 시절부터 어촌은 역사서를 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5세에 「承露盤記」를 주제로 한 鄉試 三場에서 장원을 차지했고, 21세 때 「玉門關」시로 進士試에 합격하였으며, 45세에는 文臣 庭試에 응시하여 수석을 차지했는데, 이 모두가 중국의 역사를 소재로 하여 쓴 작품들이다. 20대 때 그는 역사서를 섭렵하기 위해 일부러 작은 암자에 거처하면서 독서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sup>3)</sup> 역사에 대한 관심은 말년까지 지속적으

2) 沈彦光, 『漁村集』 卷10, 「缺題」. 이하의 시 번역은 『국역 어촌집』(정향교·최호·박도식·임호민 공역, 강릉문화원, 2006.)을 참조하되, 필요에 따라 필자가 일부 수정을 가하였다.

3) 『漁村集』 卷1에 수록된 시 「역사를 섭렵하려고 조산 작은 암자에 있으면서

로 이어져 그는 『귀전록』 말미에 42수나 되는 영사시를 남겼다. 그는 중국 역사상의 인물을 제재로 하여 영사시를 썼는데, 그 인물들의 역사적 성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시 제목	시대 및 성격	역사적 사실
1	北海牧羊 (蘇武)	前漢, 충신	흉노에게 잡혔으나 굴복하지 않고 절개를 지켜 귀국함.
2	商山採芝 (商山四皓)	秦末漢初, 은사	秦나라의 虐政을 피해 常山에 은거. 漢 高祖 때 산에서 내려와 태자 책봉에 관여.
3	擬詠史-太公	殷末周初, 공신	武王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함. 齊나라의 시조.
4	擬詠史-夷齊	殷末周初, 은사	武王의 擧事에 반대하며 首陽山에서 餓死함.
5	擬詠史-屈原	戰國 楚, 충신	懷王의 총애를 받았으나 정치적인 모함으로 인해 추방, 汨羅江에서 투신 자살.
6	擬詠史-伍員	春秋 吳, 충신	閻閭를 보좌하여 吳나라를 강국으로 키우고 이어 夫差를 섬겼으나, 정치적 모함을 당해 자결.
7	擬詠史-申生	春秋 晉, 太子	獻公의 妃 驪姬의 이간질로 誣告를 당했으나, 진상을 따지지 않고 자결함.
8	擬詠史-扶蘇	秦, 始皇의 長子	시황제가 죽은 뒤 胡亥와 李斯, 趙高 등의 거짓 詔書를 받고 자살.
9	擬詠史-蒙恬	秦, 장군	흉노 정벌에 공이 있었는데, 시황제가 죽자 조고와 이사의 흉계로 투옥, 자살.
10	擬詠史-范增	楚, 謀臣	項羽를 제후의 覇者로 만드는 데 공이 있었으나, 의심을 받고 詐面당함.
11	擬詠史-四皓	秦末漢初, 은사	수양산에 은거해 있다가 漢 건국 후 張良에게 협조, 漢의 세자를 정함.
12	擬詠史-項籍	楚, 霸王	才氣가 뛰어났으나 劉邦과의 싸움에서 패배, 烏江에 이르러 자결.
13	擬詠史-外黃兒	魏, 趙王	張耳. 항우에 의해 常山王이 되었으나, 훗날 유방에게 자진 투항, 趙王이 되었음.

자문에게 부치다(以獵史 在助山小庵 寄子文)는 이 때 독서를 하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것이다.

번호	시 제목	시대 및 성격	역사적 사실
14	擬詠史-韓信	漢初, 功臣	유방을 도와 漢 건국에 공이 있었으나, 유방의 견제로 인해 죽임을 당함.
15	擬詠史-張良	漢初, 功臣	유방을 도와 漢의 창업을 이루었지만, 공을 이룬 후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음.
16	擬詠史-賈誼	漢, 충신	재주가 뛰어나 약관의 나이에 최연소 박사가 되었으나, 고관들의 시기로 좌천.
17	擬詠史-豫讓	戰國 晉, 義士	주군인 智伯이 죽자 趙 襄子를 죽여 보복하려 했으나 실패, 스스로 자결함.
18	擬詠史-朱雲	漢, 直臣	權奸들의 사형을 주장하다 칼려 나가게 되자 난간을 잡고 놓지 않아 난간이 부러짐.
19	擬詠史-蕭望之	漢, 忠臣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환관의 전횡을 막고 제도 개혁을 시도했으나, 모함을 만나 자살.
20	擬詠史-王嘉	漢, 直臣	哀帝의 잘못을 직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감옥에서 피를 토하고 죽음.
21	擬詠史-馬援	後漢, 장군	光武帝의 신임을 받아 남방 정벌의 공이 있었으나, 비방과 모함을 만나 관직 박탈.
22	擬詠史-龔勝	漢, 충신	王莽이 집권한 후 벼슬을 주려 하였으나, 끝까지 거절하다 辟穀하고 죽음.
23	擬詠史-薛方	漢, 義士	왕망이 新나라를 세운 후 그를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끝까지 거절함.
24	擬詠史-揚雄	漢, 文臣	문장력이 뛰어났으나 왕망이 정권을 찬탈한 후 그에게 협조함.
25	擬詠史-楊震	後漢, 直臣	介潔한 성품으로 '關西의 孔子'로 불렸으나 환관들에 의해 파면, 낙향 후 자살함.
26	擬詠史-申屠蟠	後漢, 隱士	학문에 뛰어났으나 나라가 혼란해질 기미를 알아차리고, 벼슬에 응하지 않은 채 은거함.
27	擬詠史-楊彪	後漢, 謀臣	董卓의 잔당들을 이간시켜 자멸하게 하고, 獻帝로 하여금 曹操를 불러들이게 함.
28	擬詠史-臧洪	後漢, 충신	예전에 섬겼던 張超가 조조군에게 포위되자 주군인 袁紹에게 구원병 요청, 거절당하자 반기를 들었고 끝까지 저항하다 처형당함.
29	擬詠史-諸葛亮	三國 蜀漢, 謀臣	劉備를 도와 曹操를 물리치고, 유비가 죽은 후 그 아들 劉禪을 끝까지 보좌하다 病死

번호	시 제목	시대 및 성격	역사적 사실
30	擬詠史-陶潛	東晉, 은사	명문가의 출신으로 彭澤縣令에서 사임한 후 官界에서 나가지 않고 田園에서 생을 마침.
31	擬詠史-謝朓	南朝, 文臣	文名이 있었으며, 宋齊梁 三代에 걸쳐 벼슬을 함.
32	擬詠史-沈約	南朝, 文臣	시문으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며, 宋齊梁 三代에 걸쳐 벼슬을 함.
33	擬詠史-沈攸之	南朝 宋, 충신	宋 明帝의 遺志를 받들어 後廢帝를 죽인 蕭道成을 토벌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자살함.
34	擬詠史-斛律光	北齊, 충신	北周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북주의 장군 韋孝寬이 퍼뜨린 謠言으로 말미암아 모반죄에 걸려 멸족 당함.
35	擬詠史-魏徵	唐, 直臣	唐 太宗에게 重用되었으며 直諫으로 유명함.
36	擬詠史-張九齡	唐, 直臣	玄宗 때의 재상으로, 安祿山의 모반을 경계하여 奏請하였으나, 李林甫의 미움을 받아 좌천당함.
37	擬詠史-狄仁傑	武周, 直臣	則天武后 아래서 재상을 지내며 정치를 쇄신하여 '武周의 治'을 이끌었음.
38	擬詠史-五王	唐, 名臣	桓彥范, 敬暉, 張柬之, 崔玄暉, 袁恕已 武周가 막을 내린 후 李唐을 중흥시킨 공이 있었지만, 韋皇后에게 밀려 올분 속에서 죽음.
39	擬詠史-岳飛	南宋, 충신	金나라와의 전투에서 전공을 올렸지만 秦檜의 모략에 걸려 누명을 쓰고 투옥, 살해됨.
40	擬詠史-文天祥	南宋, 충신	수도가 元軍에 의해 함락된 후 勤王軍을 일으켜 대항, 元 世祖의 회유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사형 당함.
41	擬詠史-陸秀夫	南宋, 충신	益王, 衛王을 옹립하고 송나라 왕실을 지키려 애쓰. 원군의 공격을 받자 위왕을 업고 바다로 투신.
42	擬詠史-張世傑	南宋, 충신	육수부가 투신한 후 元軍에게 결사적으로 대항하다 배가 침몰하여 죽음.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의 제재가 된 인물들은 忠臣이 대다수이고, 그 외에 謀臣·名臣·功臣·直臣·隱士·太子·霸王 등으로 다양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촌은 임금에 대해 또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끝까지 싸웠던 충신들에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으며, 임금을 잘 보좌한 현명한 재상·謀臣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공을 세우고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은거의 삶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 참여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들어서 鑑戒를 삼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여 時流에 따라 기회를 타면서 여러 임금을 섬긴 文臣들에 대해서는 자못 비판적이었다. 이제 어촌의 영사시에 구현된 다양한 인물들의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Ⅲ. 詠史詩의 諸樣相

#### 1. 節義의 表彰

어촌의 영사시에는 실로 많은 忠臣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는 敵의 회유와 설득에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 마침내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이도 있지만, 대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蘇武의 경우, 흉노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다 귀국할 수 있었는데, 그 후 漢 宣帝의 옹립에 가담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關內侯에 봉해졌다. 어촌은 北海에서 양을 치던 소무를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 「北海牧羊」

白雪玄冰墮指寒	흰 눈과 두꺼운 얼음으로 손가락 떨어져나가는 추위라
十年完節最艱難	십년 동안 완전한 절의 무엇보다 어려웠으리
茂陵他日堪垂淚	무릉에서 언젠가 떨어지는 눈물을 참을 것이니
肯識吾心一寸丹	한 조각 붉은 내 마음 알아주시리라

소무는 漢 武帝의 명을 받고 흉노 지역에 사신으로 갔는데, 이 때 흉노의 우두머리인 禪于에게 붙잡혀 복속할 것을 강요당하였다. 그가 굴복하지 않자 선우는 그를 北海(바이칼호) 부근에 19년 간 유폐시켰는데, 그곳에서 소무는 양치기를 하며 긴 세월을 견뎌야 했다. 흉노에게 이미 항복한 과거의 동료 李陵이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절개를 지켰고 결국 漢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위에 인용한 시 起句와 承句에서는 소무가 흉노의 땅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살아서 돌아간 훗날을 소무의 입장에서 상상한 것인데, 언젠가 武陵에 있는 한 무제의 묘를 찾아가 배알한다면 자신이 굳게 지켰던 衷心을 임금에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절의를 지킨 충신으로서 어촌이 表彰하고자 했던 인물들은 소무 외에 龔勝, 薛方, 豫讓, 臧洪, 沈攸之, 文天祥, 陸秀夫, 張世傑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소무와 설방을 제외하면 모두가 의리를 지키다 결국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龔勝」

光祿曾爲漢室臣	광록으로 일찍이 한실의 신하가 되었으나
誰將印綬謾加身	누가 인끈을 함부로 몸에 더할 수 있으랴
平生植操堅如石	평생에 세운 절조 돌과 같이 견고하니
萬乘終難奪一人	만승으로도 한 사람의 뜻을 끝내 빼앗기 어려웠네

공승은 漢나라 때 명예로 절개로 이름이 있었던 충신이다. 哀帝 때 光祿大夫가 되었는데, 王莽이 정권을 잡자 사직을 청하였다. 왕망은 그를 등용하고자 하여 사자를 보내 여러 번 勅書와 함께 印綬와 수레, 말 등을 하사했으나, 공승은 병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 그는 漢나라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두 姓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하고서, 辟穀을 한 지 14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절의를 지키고자 고결한 죽음을 선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臧洪」

一書能愧孔璋心 한 편의 글로 공장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고  
 烈士嬰城衆所欽 열사는 성을 지켜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네  
 更使陳容同日死 다시 진용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죽게 하였으니  
 方知忠義感人深 충의로 사람을 깊이 감화시켰음을 비로소 알겠구나

장홍은 後漢 末의 정치가로 卽丘縣令을 지냈으나, 靈帝 말년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훗날 그는 張超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그를 주군으로 섬겼다. 그 후 袁紹의 휘하에 들어간 장홍은 靑州刺史가 되어 2년간 재임하였고, 다시 東郡太守가 되었다. 그런데 이전에 섬겼던 장초가 雍邱에서 曹操의 군대에게 포위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장홍은 병력을 빌려 구원에 나설 수 있도록 원소에게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장홍의 구원병만을 기다리던 장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분노한 장홍은 원소에게 반기를 들었다.

원소는 군대를 일으켜 장홍을 포위하였으나, 해를 넘기도록 함락시키지 못했다. 원소는 陳琳을 시켜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했지만, 항복하지 않겠다는 장홍의 답장을 받았을 뿐이다. 위의 시 起句에 나오는 孔璋은 진림의 字이다. 원소는 더욱 거세게 장홍을 공격하였고, 장홍은 죽음을 각오한 채 성을 지켰다. 그는 성 안의 주민들에게 탈출할 것을 권하였지만, 그들 모두가 장홍을 따르며 굶주림 속에서도 성을 떠나지 않았다. 오랜 전쟁 끝에 성은 함락되었고 결국 장홍은 원소에게 사로잡혔다. 원소는 애초에 장홍을 신임하였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자 했지만, 장홍은 절개를 굽히지 않아 끝내 처형당하고 말았다.

陳容은 서생일 때부터 장홍을 흠모하였고, 장홍이 원소 휘하에서 동군태수가 되자 그의 밑에서 쫓을 지낸 인물이다. 장홍이 처형당하게 되자 진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원소에게 충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항변하였고 이로 인해 장홍과 함께 처형당하였다. 진림은 建安七子의 한 사람으로 文名을 날렸지만, 何進·袁紹의 문서담

당자를 거쳐 조조에게 투항한 기회주의자였다. 위의 시는 장홍과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진림과 그의 절의를 본받고자 했던 진용을 함께 등장시켜 장홍의 忠義를 더욱 드러내었다.

「沈攸之」

慷慨袁劉爲國亡	원·유는 나라가 망하자 강개하나
蕭公跋扈勢難當	소공이 발호하니 세를 감당하기 어렵네
將軍不負先皇誓	장군은 선황과의 맹세 저버리지 않고
獨抱深衷指襦襦	홀로 깊은 충정을 품고 옷깃을 가리키네

위의 시는 南朝 宋나라의 충신이었던 심유지의 일을 읊은 것이다. 첫 구에 나오는 ‘袁劉’는 袁粲과 劉秉을 가리킨다. 宋 明帝가 죽음에 임해 어린 임금을 보좌하라는 遺詔를 이들에게 내렸는데, 蕭道成이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齊나라를 세우려 하자 원찬과 유병은 명제의 顧命을 받들어 소도성에게 불복하였다. 그러나 소도성은 결국 중앙군을 완전히 장악하여 順帝를 폐위시키고 제나라를 세웠다. 2구의 ‘蕭公’은 소도성을 가리킨다. 심유지 역시 명제가 죽을 때 顧命大臣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옷깃 속에는 유사시에 逆臣들을 멸하고 사직을 보위하라는 송 명제의 친필 어명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소도성을 토벌하려 했으나, 소도성이 미리 알고 방비했기 때문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심유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어촌은 이 외에도 설방, 예양, 문천상, 육수부, 장세걸 등의 일을 말하여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지켰거나, 변절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忠節을 宣揚하였다.

2. 恨死에 대한 탄식

어촌의 영사시에는 충신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역사적 성격이 꼭 같은 것만은 아니다. 앞서 열거했던 소무를 비롯한 9인의 義士와 충신들

이 스스로 비장한 최후를 선택한 것과는 달리, 뛰어난 재주로 임금을 보좌했지만 功을 이룬 후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참소를 당하여 목숨을 잃은 이들이 또한 있었던 것이다. 屈原, 伍員, 申生, 扶蘇, 蒙恬, 斛律光, 范增, 韓信, 賈誼, 蕭望之, 馬援, 楊震, 五王, 岳飛 등이 그런 경우이다. 영사시의 제재가 된 인물 가운데 이런 특성을 가진 인물이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볼 때, 어촌은 이런 ‘억울한 죽음’에 특히 더 주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屈原에 대해서는 어촌이 영사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離騷經’에 차운한 장편의 시를 짓기도 하였다. 어촌은 「次離騷經」의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離騷經을 읽고 屈原과 시대를 함께하지 못했음이 매우 슬프다. 천년 후에 그 책을 읽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아! 세상에는 賢人 君子가 있어도 울적하게 뜻을 얻지 못한 채로 있는데, 용렬한 자들은 보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감히 離騷의 운에 따라 賦를 지어 스스로 위로하노라.<sup>4)</sup>

굴원은 戰國時代 楚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懷王은 그를 깊이 신임하여 나라의 대내외적인 일을 두루 상의하였다. 당시 초나라는 秦나라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으며, 안으로는 親秦派와 親齊派의 대립이 있었다. 초의 왕족들이 친진파였고, 굴원은 친제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정치적인 모함으로 조정에서 쫓겨났다. 이 같은 내정의 불안을 틈타 진나라는 초나라가 제나라와 斷交하도록 획책하였고 진나라의 기만적인 외교술로 인해 회왕은 3년 동안 진나라에 포로로 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회왕의 장자인 頃襄王이 즉위한 후 친진 세력은 더욱 득세하였고 굴원에 대한 박해는 한층 심해져서, 결국 그는 강남으로 추방되었다. 굴원

4) 沈彦光, 『漁村集』 卷9, 「次離騷經」, “余讀離騷經, 深悲屈原之未遇時也, 千載之下, 讀其書, 可以知其人矣. 噫, 世有賢人君子, 鬱鬱不得志, 庸夫見而弭之, 豈不悲夫! 敢依離騷韻爲賦, 以自悼焉.”

은 9년 동안 湘江 일대를 떠돌다가 悲憤을 참지 못하고 汨羅江에 투신하였다. 이러한 굴원의 비극적인 삶에 어촌은 깊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굴원을 노래한 영사시를 짓고 「이소경」에 차운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어촌은 賈誼에 대해서도 시를 남겼다. 가의는 뛰어난 재주로 漢나라 孝文帝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최연소 박사가 되었는데, 周勃 등 당시 고관들의 시기로 인해 長沙王 太傅로 좌천되었다. 그는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굴원에 비유하여 「弔屈原賦」와 「鵬鳥賦」를 짓기도 하였다. 4년 뒤 다시 수도로 올라와 효문제의 막내아들인 梁王의 태부가 되었으나, 양왕이 낙마하여 급서하자 이를 슬퍼한 나머지 1년 후 죽고 말았다. 이에 대해 어촌은,

「賈誼」

痛哭危言本愛君	통곡하며 준엄하게 말하는 것은 본래 임금을 사랑해서니
人才似此漢無聞	이와 같은 인재를 한에서 들어보지 못했네
只緣絳灌多疑忌	주발과 관영의 의심과 꺼림을 많이 받았으나
不向長沙怨孝文	장사에서도 효문제를 원망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가의가 지녔던 재주와 임금을 사랑했던 마음, 권신들에 의해 의심과 시기를 받아 좌천되었지만 효문제를 원망하지 않았던 한결 같은 충심을 말하였다.

「伍員」

身事夫差欲弭違	몸으로 부차를 섬김은 도리를 바로잡기 위함이나
子胥猶未識依歸	자서는 오히려 돌아가 의지할 곳 알지 못하겠네
東門掛眼非明哲	눈알 빼서 동문에 내건 것이 명철하지 않으나
只見吳亡不見機	다만 망하는 오나라 보려 함이지 기회를 보려 함이 아니라네

위의 시는 伍子胥로 잘 알려진 춘추시대의 인물, 伍員을 노래한 것이다. 본래는 楚나라 사람이었으나, 아버지와 형이 살해당한 뒤 吳나라로

망명하였다. 吳王 闔閭를 도와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웠으나 아들 夫差에게는 중용되지 못하고 모함을 받아 자결하였다. 죽기 전 오자서는 그의 門客에게 자신이 죽으면 오나라가 월나라에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알을 도려내서 東門 위에 걸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부차는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그의 시신을 말가죽 부대에 넣어 강물에 던져 버렸다. 위의 시에서 어촌은, 부차를 충심으로 이끌려 했던 오원의 노력과 억울한 죽음, 그로 인한 원함과 분노를 말하고 있다. 눈알을 도려내서 동문 위에 걸라고 했던 유언은 결국 부차의 격노를 사서 그의 시신이 강물에 버려지는 결과를 낳았으니 명철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 번도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았던 그의 삶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생과 부소는 모두 임금의 아들로 권력욕을 가진 자들에 의해 희생된 인물들이다. 두 사람 모두 선량한 품성을 지녔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거짓 계략과 음모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申生」

歸昨吾心本孝思	주육을 보낸 내 마음 본래 효성이건만
宮中夜半泣妖姬	궁궐 한밤중에 요희가 우는구나
十年晉國無寧歲	십년 진나라에 편안한 세월 없었으니
誰信驪戎是禍基	누가 여음이 재앙의 씨앗인 줄 믿었겠는가

신생은 晉나라 獻公의 太子였다. 아버지 현공이 驪姬를 총애하여 그 소생인 奚齊를 후계자로 봉하고 신생을 烹刑에 처하려고 했으나, 도망가지 않고 공경을 다하였다. 여희는 현공과 신생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는데, 그 중 하나가 제사음식에 독을 넣은 사건이다. 멀리 떨어져 있던 신생이 현공에게 제사음식을 보냈는데, 여희는 그 속에 미리 독을 넣고서 현공이 보는 앞에서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먹게 하였다. 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여희는 祭酒에도 역시 독을 넣어 신생의 짓이라고 誣告하였다. 현공은 신생을 당장 불러들일 것을

명하였다. 신생의 謀臣들은 가서 진상을 밝히자고 하였으나 진상이 드러나면 여희가 죽게 되고, 여희가 죽으면 현공이 깊이 상심할 것을 우려하여 신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시의 첫 구는 이러한 정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여희는 현공 앞에서 여러 차례 우는 연기를 하며 그에게 자신의 선함을 보였고 동정심을 유발하였다. 자질이 훌륭한 여러 아들들을 제쳐두고 해제를 후계자로 삼았을 때도 그것을 짐짓 반대하는 척하며 눈물을 흘렸고, 신생이 자신에게 수작을 건다고 음해할 때도 눈물을 흘렸다. 2구는 그런 여희의 妖邪한 작태를 그린 것이다.

여희는 원래 이민족인 驪戎 군주의 딸이었지만, 현공이 여용을 정벌하였을 때 사로잡혀 동생과 함께 현공의 후궁이 되었다. 현공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된 후 여희는 자신이 자식인 해제를 태자로 삼으려고 태자인 신생을 비롯해 重耳, 夷吾 등 다른 아들들까지도 모함하여 차례로 죽이려 하였다. 결국 태자인 신생은 자살하고 아버지인 현공이 자신의 두 아들인 중이와 이오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진나라의 정치는 큰 혼란에 빠졌다. 중이와 이오는 도망하여 진나라를 탈출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진의 국력은 크게 쇠퇴하였다. 바로 3·4구가 지시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扶蘇는 秦始皇의 長子였다. 長城에서 흉노를 방어하던 몽염의 군대를 감독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가, 시황제가 순행 도중 沙丘에서 죽은 뒤 胡亥와 李斯, 趙高 등이 거짓으로 보낸 시황제의 詔書를 받고 자살하였다. 蒙恬은 秦나라 장군으로, 齊나라를 멸망시킬 때 큰 공을 세웠으며 흉노 정벌에 큰 활약을 하였다. 북쪽 변경을 경비하는 총사령관으로서 上郡에 주둔하였는데, 시황제가 죽자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의 凶計로 투옥, 자살하였다. 몽염의 죽음에 대해 어촌은 “손에 군사 30만을 쥐고서도, 원통함을 머금고 헛되이 죽으니 어찌 남아있겠는가.”라며 탄식을 했지만 역시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蕭望之」

閹宦深根力未鋤	내시의 깊은 뿌리 힘써 김매지 못하고
殞身應坐亂邦居	어지러운 나라에 살다 몸을 망치고 말았네
官爲師傅知昏主	관직이 사부가 되어 혼주임을 알았으나
明哲當時愧二疏	명철하기론 당시의 이소에 부끄러우리라

소망지는 前漢 시대의 학자이자 관리였다. 농민 출신이었으나 推舉되어 長安에서 학업을 닦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당시의 실력자인 霍光에게 꺾박을 받았지만 꺾씨가 몰락한 후에는 宣帝에게 신임을 얻어 太子太傅를 역임하였다. 환관인 弘恭, 石顯 등의 전횡에 맞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모함을 받아 벌을 받게 되자 자살하였다. 위 시의 1·2구는 이러한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마지막 구의 “二疏”는 疏廣과 疏受를 가리킨다. 한나라 선제 때 소광은 太子太傅가 되고, 그 형의 아들인 소수는 太子少傅가 되었는데, 5년간 재직 후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그들의 어짐에 감동하여 公卿과 그의 벗들이 東都門 밖에 전별연을 열었다고 한다. 3·4구는 소망지가 태자의 사부가 된 후에 임금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 만큼 명철하였지만, 소광과 소수처럼 만족을 알고 적절한 시기에 떠나지 않았으니 명철함으로 따지면 그들에게 뒤진다고 하여 鑑戒로 삼은 것이다.

이 외에도 어촌은 범중, 한신, 곡율광, 마원, 양진, 오왕, 악비 등을 노래하며, 주군을 위해 충성을 다하였지만 주변의 시기와 질투, 모함으로 인해 원통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였다.

## 3. 進退의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商山四皓, 姜太公, 伯夷·叔齊, 陶淵明, 張良, 申屠蟠, 諸葛亮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 상산사화에 대해서는 두 수의 시를 남겨 그들이 은거하던 삶을 버리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商山採芝」

忘世如何尚未忘    세상을 잊는다면서 어찌하여 아직도 잊지 못하였나  
 定儲猶足濟黔蒼    세자를 정하는 건 오히려 백성을 구제할 만했네  
 起來暫試經綸手    몸을 일으켜 잠시 경륜의 솜씨 시험하였으나  
 不必留侯策獨良    유후의 책략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으리라

商山四皓는 秦나라 말기에 虐政을 피하여 상산에 숨어살았던 東園公, 夏黃公, 綺里季, 角里先生을 가리킨다. 이들이 오랜 세월 은둔을 끝내고 하산하였을 때는 다같이 80여 세가 되어 눈썹이 모두 하얗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상산사호’라고 불렀다.

劉邦은 오래 전부터 이 네 사람의 명성을 듣고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일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유방은 한나라를 세운 후 長子인 劉盈을 태자로 세우고, 如意를 趙王에 봉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천성이 나약하고 재주가 평범한 데 비해, 여의는 총명하고 학문도 출중하였다. 또한 자신이 낳은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는 戚夫人의 간절한 요구도 있었으므로 유방은 유영을 폐하고 여의를 태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유영의 어머니인 呂太后는 이 풍문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 張良의 건의대로 상산사호를 초빙하였다. 高祖와 君臣이 함께한 연회장에 태자를 따라 들어선 상산사호는, 자신들은 태자의 빈객이라며 태자의 훌륭한 덕성을 칭송하였다. 고조는 태자가 동정 받고 있음을 깨닫고 조왕 여의를 태자로 하겠다는 생각을 거두었다. 은거하던 삶을 버리고 현실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 같은 정황이 위의 시 1·2구에 그려졌다.

그러나 유영은 帝位에 오르고 나서 어머니인 高皇后 呂氏의 그늘에 가려 불운한 황제로 지냈다. 유방이 죽은 후 여태후는 유방의 총애를 받던 척부인을 질투하여 그녀와 그녀의 아들 유여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결국 여태후는 유여의를 죽이고 척부인의 팔다리를 잘라 ‘人彘’를 만드는 등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유방의 큰아들인 劉肥가 여전히 魏제[유영]의 정적이라 생각하고 연회에서 독주를 준비하

여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혜제의 방해로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이런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혜제는 정치에 뜻을 잃었다. 야심이 컸던 여태후는 자신의 문중 인사들을 조정에 발탁, 조정을 장악하였으므로 혜제는 평생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였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위의 시 3·4구에서 어촌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상산사호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자신들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태후의 횡포를 방조한 입장이 되었으니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어촌은 懷疑하고 있는 것이다.

太公望이 武王을 도와 殷나라를 멸망시킨 일에 대해서도 어촌은 선뜻 공감을 표하지 않는다.

### 「太公」

幾年箕穎擬風流	몇 년 동안 기영의 풍류를 흉내 내더니
白首垂竿竟釣周	흰머리로 낚시대 드리우고 마침내 주를 낚았네
未識渭川堪洗耳	위천에서 귀를 씻을 수 있었을까 알 수 없지만
鷹揚牧野欲焉求	목야에서 명성을 떨침은 무엇을 구하고자 함인가

太公의 본명은 姜尙인데, 그의 선조가 呂나라에 봉해졌으므로 呂尙이라 불렸고, 太公望, 姜太公으로도 불린다. 그는 東海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는데 집안을 돌보지 않고 독서에만 몰두하여 그의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한다. 하루는 渭水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인재를 찾아 돌아다니던 西伯-훗날의 周나라 文王-에게 발탁되어 그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文王의 아들인 武王을 도와 商나라 紂王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그 공으로 齊나라 제후에 봉해져 그 시조가 되었다.

1구의 “箕穎”은 堯임금이 帝位를 禪讓하려고 許由를 찾아갔는데 그가 거절하고 箕山에 숨어 穎水에 귀를 씻었다는 고사를 빗댄 것이다. 위수에서 낚시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태공의 모습에 대해 許由를 흉내 낸 것일 뿐이라고 폄하하였다. 2구에서는 늘그막에 낚시를 드리우고 있다

가 마침내 周를 닦았다고 했다. 전설에 의하면 태공의 낚시 바늘은 갈고리 모양이 아닌 일자의 바늘이었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낚시 자체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위수 가에 앉아 있었던 셈이다. “마침내 周를 닦았다”는 표현은 그런 면에서 적확하다고 볼 수 있다. 허유가 영수에서 귀를 씻은 것처럼 태공망도 위수에서 귀를 씻으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은 모를 일이라고 시인은 농쳤지만 4구를 보면 태공망을 바라보는 시인의 인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牧野는 무왕이 5만의 군대로 紂王의 70만 대군을 이긴 전투의 현장이다. 사기충천한 무왕의 군사들이 은나라 수도에서 70리 떨어진 목야에 이르렀을 때 상나라 주왕은 군사 70만을 끌어모아 직접 그곳으로 달려 나왔다. 숫자상으로는 주왕에게 절대 유리할 것 같았지만, 상나라 군사의 대부분은 노예이거나 東夷에서 잡혀온 포로들이었다. 주왕의 학대를 받아온 그들은 오래 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으므로, 무왕의 군대가 진격해 오자 모두 창끝을 되돌려 상나라 군대를 공격했다. 70만 대군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태공망은 군사를 지휘하여 상나라 수도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무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격할 당시 이것을 간절히 막은 이들이 있었으니 곧 伯夷와 叔齊이다. 이들은 무왕이 주왕을 토벌하는 일이 大逆無道하다는 이유로 질책했고, 태공망은 장수들에게 명하여 이들을 죽이지 말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게 했다. 나중에 그들 형제는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그마저도 관두고 곡기를 끊어 자살하였다.

어촌은 태공의 일을 읊은 다음 바로 뒤에서 ‘夷齊’ 즉 백이·숙제의 일을 읊었다. 「夷齊」의 3·4구에서 그는 “죄인을 풀어주고 봉분을 먼저 할 뿐, 서산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조문하지 않는구나.”<sup>5)</sup>라고 하였다. 죄

5)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夷齊」, “大義堂堂扣馬陳, 殷亡豈獨有三仁. 釋囚封墓徒先務, 不問西山餓死人.”

인을 풀어주고,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사람은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봉분을 높이 쌓아올려 주지만, 그 전쟁이 옳지 못함을 주장한 백이·숙제의 행동은 기억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다분히 비판적이다. 이것과 위의 시 마지막 구를 연결해서 본다면, 태공은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은둔의 흥내만 내다가 백이·숙제 같은 節義之士를 수양산에서 굶어죽게 만든 셈이다. 목야의 전투는 태공망에게 현실적 성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大義로 전쟁의 부당함을 직언한 夷齊 같은 이들의 희생이 깔려 있는 것이다.

### 「申屠蟠」

黨籍逃名作逸民	당적에서 명성을 피해 달아나 일민이 되었으니
姦兇豈合洗高人	어찌 고인이 간흉의 더럽힘을 입겠는가
蔡邕荀爽顏何厚	채옹과 순상은 얼마나 낮짝이 두꺼운가
終爲郿侯屈此身	끝내 미후를 위해 그 몸을 굽히었다네

신도반은 後漢 때의 사람으로 經學과 圖緯에 능통했다. 누차에 걸쳐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끝까지 불응하고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그는 나라가 혼란해질 기미를 알아차리고 아예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움집을 짓고 숨어 살았다. 그 때문에 후한 말기의 수많은 변란을 다 면하였으므로 선견지명이 높은 사람으로 손꼽힌다. 1·2구는 신도반과 관련된 이 같은 사실을 담고 있다.

3·4구는 신도반과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蔡邕과 荀爽을 그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董卓에게 발탁되어 높은 벼슬에 올랐던 이들이다. 동탁은 獻帝를 옹립하고 나서 상국으로 승진하였고 郿侯에 봉해졌다. 어촌은 이 시에서 채옹과 순상을 厚顏無恥의 인간으로 비판하면서, 반대로 혼란한 세상을 피해 은거하며 몸을 보존하였던 신도반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어촌은 도연명, 장량, 제갈량 등의 삶을 노래하였다. 전원에서의 삶을 지향한 도연명과 功을 이룬 후 은거를 택한 장량의 선택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선을, 은둔에서 몸을 빼내 유비를 돕고 이어 그의 아들 유선을 도운 제갈량의 선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후주가 위의 빈객 될 줄을 일찍이 알았다면, 초려에 누워 일생을 마침이 합당했으리라.”<sup>6)</sup>고 한 것을 보면, 제갈량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선이 중국에는 魏나라 장수 鄧艾에게 투항하였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갈량의 헌신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 4. 明哲保身の 警戒

어촌은 절의의 충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時流에 따라 변절하는 기회주의자들을 경계한다. 여기에 속한 인물로는 外黃兒 張耳, 揚雄, 謝朓, 沈約, 楊彪 같은 이들을 들 수 있다. 어찌 보면 明哲保身に 탁월했던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삶이 옳았던가는 숙고해볼 여지가 있다.

##### 「外黃兒」

殺降徒使衆心離	사람을 많이 죽여 무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坑盡新安尙忍爲	신안에 모두 묻으니 차마 할 수 있겠는가
西楚君臣皆不智	서초의 군신은 모두 지혜롭지 못하니
善謀誰似外黃兒	도모를 잘한 외황아와 누가 같겠는가

魏나라 출신의 張耳를 노래한 시이다. 그가 위나라의 外黃에서 유랑하다가 그곳 부호의 딸과 혼인하고, 벼슬을 얻어 외황의 수령까지 지냈기 때문에 ‘외황아’라고 부르는 것이다. 秦나라가 魏나라를 멸망시킨 후 진나라에서는 張耳와 陳餘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 두 사람은 성명을 바꾸고 陳나라로 도망쳤다. 두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신의를 지키기로 한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항우가 제후왕을 分封할 때 장이는 常山王

6)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諸葛亮」, “鄴下繁雄作帝居, 區區庸蜀欲何如. 早知後主終賓魏, 只合終身臥草廬.”

이 되었다. 그러나 후에 장이는 劉邦에게 자진 투항하여 趙王이 되었다. 훗날 장이는 이익과 권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勿頸之交’를 약속한 진여와 원수가 되었고, 진여는 漢을 배반한 까닭에 피살당하였다.

위 시의 1·2구는 항우에 대한 비판이다. 항우는 新安城 남쪽에 秦나라 군사 20만을 생매장하였다. 이렇게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항우이니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를 떠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3구는 서초패왕의 힘과 피가 다하였는데도 그의 곁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하다 목숨을 잃은 江東의 자제들을 언급하며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4구에서 유방에게 자진 투항하여 趙王이 된 장이를 칭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과연 장이를 말 그대로 칭찬한 것인가는 따져봐야 한다. 『史記』에 수록된 「張耳 陳餘 列傳」에 나오는 司馬遷의 평을 보면 어촌의 장이에 대한 평가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마천은 이들에 대해 사뭇 비판적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장이와 진여는 어진 사람으로 세상에 전해졌으며, 그들의 빈객과 종들까지도 천하의 준결이 아닌 자가 없어서 제각기 살고 있는 나라에서 卿相의 자리를 얻었다. 장이와 진여가 처음에 빈궁할 때에는 서로 죽음을 무릅쓰고 신의를 지켰으니, 어찌 서로 돌아보고 의심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움켜쥐고 권력을 다투게 되자, 마침내는 서로를 멸망시켰다. 예전에는 서로 양모하고 신뢰함에 있어 성의를 다하더니 뒤에는 서로 배반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들이 권세와 이익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비록 명예가 높고 빈객이 많았다고 해도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太伯이나 延陵의 季子와는 아마도 상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사마천의 이러한 평가를 참고해 본다면, 어촌의 장이에 대한 마지막 구의 언급은 반어와 풍자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揚雄」

西漢流風竟諛諛	서한의 풍류 마침내 아첨으로 흐르더니
紛紛頌莽國無儒	여기저기서 왕망을 칭송하여 나라에 선비가 없네
平生識字終安用	평생의 식자를 끝내 어디에 썼는가
謾向新都作大天	부질없이 신도로 가서 대부가 되었구나

양웅은 청년시절에 동향 선배인 司馬相如의 작품을 통하여 배운 문장력을 인정받아, 漢 成帝 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성제의 유람에 수행하면서 지은 「甘泉賦」, 「河東賦」, 「羽獵賦」, 「長楊賦」 등은 문장이 화려하면서도 성제의 사치를 꼬집는 풍자를 담고 있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삶이 불우한 원인을 분석한 「解嘲」, 「解難」도 독특한 여운을 주는 산문으로 평가받는다. 학자로서 각 지방의 언어를 집성한 『方言』, 『易經』에 기본을 둔 철학서 『太玄經』과 『論語』의 문체를 모방한 수상록 『法言』 등을 저술하였다. 이처럼 당시에 文名을 떨친 그의 식견은 漢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망이 정권을 찬탈한 뒤 새 정권을 찬미하는 문장을 썼고 괴뢰정권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지조가 없는 사람으로 宋學 이후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촌은 양웅의 뛰어난 문장력을 주목하지 않고 그가 왕망에게 협조하여 그 밑에서 벼슬한 것을 비판한다. 그 사람이 가진 재주보다는 그 삶의 궤적을 더 중시하는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앞서 논했던 ‘장홍’의 일에서도 그는 陳琳을 대조시켜 장홍의 절의를 칭송했는데, 진립 역시 문장으로는 조조의 지병인 두통을 잊게 할 만큼 실력자였다. 그러나 어촌은 문장과 식견이 뛰어난 그 자체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룬 것이 무엇인가에 더 주목하였다.

「謝朓」

風節當時說謝家	풍모와 절도 당시에 사가를 말하는데
休文懷詔厚顏多	휴문이 말 잘함은 얼굴이 두텁기 때문이네
角巾底事歸梁武	은사가 어찌하여 양무에게 돌아가라
末路身名愧二何	만년에 신명이 이하에게도 부끄러우리라

사비는 南朝 宋의 시인 謝莊의 둘째 아들로, 10세에 글을 잘 지어 神童의 이름을 얻었으며, 宋·齊·梁 삼대에 걸쳐 벼슬하였다. 첫 번째 구에서는 “謝家”는 사비가 謝靈運을 배출한 명문가 謝氏의 집안 출신임을 말하였다. 2구에 나오는 “休文”은 沈約의 字인데, 그 역시 宋·齊·梁 세 나라에서 벼슬하였다. 사비와 심약 모두 문장을 잘해서 당시에 이름이 있었지만 역시 厚顏無恥한 인간들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사비가 마치 절개가 있는 선비인 양 오해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 宋나라가 망하고 南齊의 高帝인 蕭道成이 宋主로부터 禪位받을 당시 사비가 侍中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옥새의 전달은 시중이 하게 되어 있는데, 사비는 모른 척하고 있었다. 명을 전하는 자가 옥새를 齊王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사비는 “제나라에 응당 시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베개를 베고 누워버렸다고 한다. 이 사건만 볼 때는 그가 송나라의 純臣이고 齊나라를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그에게서 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제나라에서 네 임금을 섬기고 심지어 태수가 되어 외직으로 나가기를 구하였고 이후 梁나라까지도 섬겼던 것이다. 위 시의 3구는 그러한 사정을 담고 있다.

4구에 나오는 “二何”는 쑤나라 때의 隱士인 何充과 何準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며, 불교를 숭상하여 사찰들을 건립하고 수많은 승려를 공양하였다. 사비가 참으로 절의가 있는 선비라면 齊나라뿐 아니라 梁나라를 세운 武帝에게도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양 무제의 치세는 50년에 이르는데, 그 전반은 정치에 힘을 기울였으나 후반에는 그의 불교신앙이 정치면에도 나타나, 불교 사상에서는 황금시대가 되었지만 정치는 파국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양 무제의 崇佛에 혹 마음이 이끌려 사비가 그 밑으로 들어가 벼슬을 했다 해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숭불했던 하충과 하준 같은 이가 있으니 그들과 비교하면 사비의 말년의 행로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리라는 비판이 읽혀진다.

#### IV. 結語

심언광이 낙향한 후 쓴 시들에서는 곳곳에서 슬픔과 회한이 묻어난다. “나아가고 물러남에 절로 부끄럽고, 나라의 안위 이어가지 못하였네.[自慙身進退, 不係國安危]”<sup>7)</sup>, “동으로 오니 삭막하고 시사가 없어, 가슴속 그리움만 갈래갈래 남았구나.[東來索莫無詩思, 只有胸中愁緒多]”<sup>8)</sup>, “엄한 견책을 만나 나라를 등지고, 성대한 때에 명예를 잃었으니 부끄럽네.[負國遭嚴譴, 虧名愧盛時]”<sup>9)</sup>라고 한 토로는 그가 지난날의 잘못을 얼마나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또 「夢見天顏」이라는 시에서 늘 대궐을 그리워하며, 하얗게 센 머리로 일편단심 임금을 생각하며, 대궐에서 임금을 모시던 지난날들을 꿈속에서 본다고 하였다.

이 같은 그의 심리상태를 염두에 두고 그가 말년에 지은 영사시를 보면 그 속에서 심언광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선 그가 거론한 인물들은 대개가 위기의 시대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충신이다. 盛世에 명예를 잃은 것이 부끄럽다고 하였지만, 이 시대 또한 제 한 몸을 아끼지 않고 임금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충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심언광 자신이 그런 충신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순수한 衷情이 항상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이 절의를 지키고, 임금을 위해 직간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다 펼쳐서 임금을 보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소와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심언광은 재주를 다 펼쳐보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며 자신을 위

7) 沈彦光, 『漁村集』 卷10, 「宿白洞驛」 中.

8) 沈彦光, 『漁村集』 卷10, 「毛老嶺上 遇雪」 中.

9) 沈彦光, 『漁村集』 卷10, 「到湖莊」 中.

로하였을 것이다. 자신을 옹아매는 세상의 그물이 넓고도 넓다는 탄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반드시 정당하지만은 않다는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이 아닐까.

진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은둔 끝에 현실정치에 참여하였지만 그다지 빛나지 못했거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경계하였고, 은둔을 지향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서술을 하였다. 이는 지금 벼슬에서 물러나 있는 처지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는 여러 왕조를 거치고 여러 임금을 섬기면서 時流의 변화에 발맞춰 保身을 잘한 기회주의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다. 시문을 잘 짓고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권력에 아부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삶은 그에게 가치 없는 삶이다. 그는 朱雲, 王嘉, 魏徵, 張九齡, 狄仁傑 등을 노래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直臣들을 선양하였다. 直諫과 直言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태도 역시 그가 지향했던 충신의 참모습이었을 것이다.

심언광이 노래한 인물들은 일반적으로 충신·재사·모신으로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國事를 염려하는 신하라면 누구라도 본받고 추앙할 만한 인물들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심언광이 영사시의 제재로 삼은 이들이 조선시대 문인들이 쓴 영사시의 공통적인 소재로 쓰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다소간의 차이들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대의 다른 문인들, 또는 다수의 영사시를 창작한 여타 문인들의 작품과 비교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 속의 어떤 인물들을 선택해서 평가했는지 좀 더 정치하게 살펴보면 심언광의 영사시에 내재된 독특한 개성과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문인들의 영사시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參考 文獻>

- 『漁村集』, 『韓國文集叢刊』 24, 한국고전번역원.
- 정향교·최호·박도식·임호민 공역, 『國譯 漁村集』, 강릉문화원, 2006.
- 『朝鮮王朝實錄』 DB, 국사편찬위원회.
- 김은정,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2000.
- 박도식,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경세론」, 『제1회 어촌 심언광 학술세미나 자료집』, 강릉문화원, 2010.
-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 『제1회 어촌 심언광 학술세미나 자료집』, 강릉문화원, 2010.
- 박해남, 「어촌 심언광의 시문학 고찰」, 『제2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자료집』, 강릉문화원, 2011.
- 신익철, 「심언광의 ‘동관록’과 ‘귀전록’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제1회 어촌 심언광 학술세미나 자료집』, 강릉문화원, 2010.
- 이한길, 「어촌 심언광의 한시 고찰」, 『제8회 강릉전통문화 학술세미나 자료집』, 강릉문화원·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2007.

### Abstract

*Eochon Sim, Eon-gwang's history awareness and view of life  
showed in his historical poems / Kang Ji Hee\**

Eochon Sim, Eon-gwang was a well-known statesman of Jungjong in the Joseon Dynasty. He was also good at poetry and prose. He wrote 850 poems and his historical poems run into 44 poems. After encountering discharge, he returned to his own old home and wrote these historical poems. We can understand Eochon's history awareness, view of life and moral values through his historical poems. I analyzed his historical poems in this paper.

We can find sorrow and regret in his poems which he wrote after he came back to his old home. He took time for self-examination because of the mistake he did and always thought of the good old days when he was in the court of King Jungjong. In his latter years, Eochon wrote all of historical poems and their materials were mostly loyalists in time of crisis. He wanted to be a loyalist like them. But loyalists in history did not always get some payment in return. Many loyalists died under a false accusation in spite of faithful mind. Eochon wrote poems about people who was righteous but died under a false accusation. I think that he wanted to dedicate a requiem for them and give words of comfort for himself.

As for one's course of action, he learned a lesson from a person who got in politics after seclusion but could not succeed eventually. He highly praised the life of a recluse. At that times he retired from politics and returned to his home, so he seemed to accept his realities positively. He disliked a opportunist in history. Eochon landed on a person who flattered power of

---

\* Lecturer at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Hallym Univ. / haha0215@hanmail.net

injustice although he became a high official thanks to his outstanding talent. He mostly praised immediate vassals over death. I think that he wanted to be a loyalist whom he praised in his poems.

【Key words】 Eochon Sim Eon-gwang, historical poem, loyalist, faithful mind, death under a false accusation, one's course of action, opportunist

투고일 : 5월 12일, 심사일 : 6월 3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